

瑞山 富城山城의 考察

이 남 석*

목 차

- | | |
|--------------------|--------------|
| I. 머리 말 | 2. 遺物의 檢討 |
| II. 百濟時代의 瑞山과 山城現況 | IV. 富城山城의 性格 |
| III. 富城山城 | V. 맺음말 |
| 1. 城郭現況 | |

I. 머리 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는 부성산성으로 불리는 작은 산성이 하나 있다.¹⁾ 이 산성은 왕성으로 불리는가 하면, 富城이란 地名에 근거하여 신라의 최치원과 관련된 많은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²⁾ 성곽은 상당히 頽落되었지만, 성내에서 다량의 기와편이나 토기편이 수습되며, 백제시대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이 산성은 충남 서산의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해안에 밀착되어 있고, 성내에 시설이 매우 조밀하게 들이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황은 이 산성의 立地와 더불어 특수한 기능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사실, 산성은 국방상 마련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山城의 나라라고 할만큼 전국 각지에 山城이 散在되어 있다. 특히 三國이 雌雄을 겨루던 古代時期에 조성된 산성이 많은데 충남지역의 경우 백제산성만도 약 250여기가 있는 것으로 전한다.³⁾ 잘 알려져 있듯이 서산지역은 삼국이전에는 馬韓의 小國이 자리한 지역이고, 이후에는 百濟의 領域이었던 지역이다. 마한시대에는 이 지역에 자리한 토착집단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국방상, 혹은 군사 행정적 이유로 성곽을 건설하였을 것이다. 성곽이외에도 서산지역에는 백제관련 유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다. 이들은 산성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이 산성의 존재는 일찍이 알려졌으나 구체적 조사는 1997년에 개략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李南奭, 1997. 「歷史遺蹟」 『瑞山圈域의 文化遺蹟』 (瑞山文化院).

2) 서산시, 1998. 『서산의 역사』 서산시지 제 2권 참조.

3) 徐程錫, 1992. 「忠南地域의 百濟山城에 對한 一研究」 『百濟文化』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2輯.

과 더불어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금강 유역으로 南遷하면서 대중국 교섭의 통로를 서해로 마련하였을 것이고, 서산지역의 백제 유적은 이러한 백제의 대외교통로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부성산성은 여러 가지 정황을 考慮하건데 혹시 이 산성이 백제의 대중통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산성과 같은 유적의 연구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우선 유적의 규모로 보아 구체적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와 더불어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유물 및 유구의 重層으로 축성시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산성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표면 수습유물이나 혹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고찰되면서 대체로 축성시기의 파악에 초점이 모아져 있을 뿐이고, 기능이나 역사성까지의 확대 이해는 거의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부성산성의 경우도 구체적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단지 지표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 산성은 城郭외에 입지나 성내의 추정 建物址의 잔존상황, 그리고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수습되어 이를 토대로 성곽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의 일단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고찰은 지표조사에서 얻어진 유물을 토대로 성곽의 축조 및 기능시기를 추정하고, 여기에 입지나 형태를 근거하여 산성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서산의 백제시대 정황을 알기 위해 역사외에 유적 특히 關防遺蹟 자료를 검토하고, 이어 부성산성의 성곽과 출토유물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곽의 축조시기 및 변천문제를 살핀 다음,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百濟時代의 瑞山과 山城現況

고대시기 서산지역의 역사를 고구할 만한 문헌기록은 마땅치 않다. 원삼국기의 마한 소국의 범주에서 致利鞠國이 서산지역에 위치가 비정 되지만⁴⁾ 확증은 어렵다. 그리고 이후 백제시기의 역사를 考究할 때 백제 말기의 方郡城制가 실시되면서 서산지역에 基郡이 있고, 이 基郡의 隸屬下에 知六縣과 星大號縣이 있었다는 기록과,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도 행정구역 편제와 관련하여 熊川州下의 富城郡이 서산지방였다는 정도의 고찰이 전부이다.⁵⁾ 따라서 서산지역의 고대시기 현황을 문헌기록으로 고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서산지역의 고대시기 역사에 대한 대략의 현황 이해는 가능하다. 그러나 고고학자료의 특성상 발굴과 같은 구체적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 성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백제사와 관련한 고고학적 관심이 도읍지였던 오늘날의 공주와 부여에 집중되었던 관계로 이 지역의 자료조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4) 李秉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壇學報』 1-8집

5) 『三國史記』 雜誌 地理條 參照

서산지역의 고고학적 현황은 해미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같이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된 바 있으며,⁶⁾ 이미 오래 전에 서산의 마애삼존불이나 대산면 명지부락고분⁷⁾ 알려져 있어 그 대략적 정황의 이해는 가능하다. 다만 조사 예는 상대적 열세가 두드러진 형편이어서 현존의 자료만으로 전체적 맥락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명지부락 고분군은 1969년에 발굴조사된 바 있는데, 유적은 토광묘로 대체로 3-4세기의 어간으로 編年될 수 있는 것으로 원삼국기 말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 인근의 대로리 고분군⁸⁾ 고려할 경우 원삼국기에서 이후의 서산지역 고대 인문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최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운산면 여미리의 백제고분⁹⁾ 포함하면 백제가 금강유역에 移都한 이후의 시기까지 이어지는 유적이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 불교유적이 대체로 도읍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운산면의 마애삼존불은 서산 지역의 고대시기 특히 백제시대의 지역적 특수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한편 서산지역에는 관방유적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우선 공간적으로 서산시에 한정하면서 여기에서 조사된 관방 유적은 18개가 확인되었는데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⁰⁾

<표 1> 서산 지역의 성곽 및 봉수 현황

	遺蹟名	位 置	時代	性 格	備 考
1	新松里山城	瑞山市 高北面 新松里 烽火山	백제	산성·봉수	석성
2	燕岩山城	瑞山市 高北面 長栗里, 草綠里, 海美面 大谷里	고려	산성	석성
3	礪陽里山城	瑞山市 海美面 礪陽里	미상	산성	석성
4	雄梳城里山城	瑞山市 海美面 雄梳城里	미상	산성	토성
5	銅岩山城	瑞山市 雲山面 佳佐里·葛山里	미상	산성	토성
6	富城山城	瑞山市 地谷面 山城里	백제	산성	석성
7	花秀里山城	瑞山市 仁旨面 花秀里	미상	산성	토성
8	栗木里山城	瑞山市 音岩面 栗木里·聖淵面 鳴川里	미상	산성	토성
9	北主山城	瑞山市 邑內洞	백제	산성	석성
10	公林山城	瑞山市 瑞山市 禮川洞	미상	산성	토성

6) 國立中央博物館, 1990. 『休岩里』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22책.

7) 韓炳三·金永培, 1969. 「大山面 百濟土壙墓 發掘報告」 『考古學』 2輯.

8) 李南奭, 1997. 앞의 報告書.

9) 이 유적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과 구간을 1998년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원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삼족토기가 출토되는 백제시대 석실분을 비롯한 이전의 토광묘 등이 확인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10) 서산지역의 관방 유적은 이외에도 운산면 상왕산에 둘레 약 4km의 석축산성, 정미면 여미리의 전라산이라 불리는 곳에도 있다. 그런데 전자는 순수 석축의 협축성이나 성내에서 유물의 수습이 어려워 시대판단이 어렵고, 단지 성곽의 형상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여미리 산성은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는 기와편 등이 산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다 축성시기를 상향할 수도 있다.

	遺蹟名	位 置	時代	性 格	備 考
11	上紅里山城	瑞山市 音岩面 上紅里	미상	산 성	석성
12	土城山城	瑞山市 仁旨面 菴堂里 土城山	미상	산 성	토성
13	虎里城	瑞山市 八峰面 虎里	조선	산 성	석성
14	海美邑城	瑞山市 海美面 邑內里	조선	평지성	석성
15	瑞山邑城	瑞山市 邑內里	조선	평지성	석성
16	古波島城	瑞山市 八峰面 古波島里	조선	산 성	석성
17	北主山烽燧	瑞山市 邑內洞	조선	봉 수	
18	都飛山烽燧	瑞山市 浮石面 翠坪里	조선	봉 수	

확인된 18개의 관방유적 중에 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13개소이고, 평지성은 2개 지역이다. 그리고 봉수가 2개 지역인데, 1개 지역에서 봉수와 산성이 중복된 채 남아 있다. 산성은 축조재료에 의해 구분하면 토성이 6개 지역이고, 석성이 7개 지역이다. 문제는 이들 관방유적의 편년문제이다.

그런데 평지성으로 분류된 읍성, 그리고 진성과 봉수는 문헌기록에서 그 흔적을 확인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읍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海美邑城의 경우 기록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거나 여지승람¹¹⁾, 문종실록¹²⁾, 여지도서¹³⁾에 그 편린이 확인된다. 서산읍성은 문종실록¹⁴⁾과 동국여지승람¹⁵⁾, 그리고 여지도서¹⁶⁾에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진성은 『忠淸道邑誌』¹⁷⁾에 古波島에는 일찍부터 水軍 萬戶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조선 중종 11년(1516)에 처음으로 석성이 축조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古波島城은 波知導 萬戶가 군사를 나누어 지킨 戍城이라는 것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나아가 봉수의 경우 고구현의 봉수¹⁹⁾와 북산²⁰⁾. 도

- 11) 『輿地勝覽』 關防條 “兵馬節度使營 有石城 周三千一百七十二尺 高十五尺 內有三井 又有軍倉”
12) 『文宗實錄』 元年 9월 庚子條에 “海美縣內廂城 周回三千三百五十二尺 高十二尺 女牆高三尺 敵臺十八內十六末築 門四 無甕城 女牆六百八十八 垓子周回三天六百二十六尺 城內泉三”
13) 『輿地圖書』에 “城周圍以尺計之則六千六百三十尺 以步計之則二千二百十步 以丈計之則一千三百二十六丈 高以尺計之則十三尺 以步計之則四步一尺 以丈計之則二丈三尺 雉城三百八十二堞 甕城二處 譙樓炮樓無 南門三間虹霓二層樓 東門三間 西門三間 北門無 柁木繞城 城內泉井六 庫濼池無”
14) 『文宗實錄』 2년 2월 丙子條에 “三道都體察使鄭華請 築忠淸道瑞山邑城 及慶尙道蔚山柳等浦石堡”
15) 『東國輿地勝覽』 “邑城 石築周三千七百十尺 高十二尺 西有小溪流入城內”
16) 『輿地圖書』 瑞山 城池條에 “邑城 周回以尺計之二千七百十七尺 以丈計之九百三丈 以步計之一千八十四步 築高以尺計之九尺 以丈計之三丈 以步計之四步 女牆三百七十四 曲城八 庫甕城無 東門三間一層 西門三間一層 南門三間一層 泉井三 庫三一庫在東門內 長一丈五寸 廣一丈五寸 深三丈 一庫在衛北 長一丈 廣一丈 深四丈 一庫在西門內 長一丈 廣一丈 深三丈”
17) 瑞山郡 關防條에 “古波島 在郡西文峴面三十五里 古有水軍萬戶 正德丙子始築石城 周一千三十七尺 高十一尺 內有一井 今廢”
18) 瑞山郡 關防條에 “古波島 在郡西文峴面三十五里 古有水軍萬戶 正德丙子始築石城 周一千三十七尺 高十一尺 內有一井 今廢”

비산²¹⁾의 봉수 3지점의 사례가 있다. 고구현의 봉수는 동국여지승람의 洪州牧의 古跡條에서 高丘縣에 대한 기록과 유적의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신송리 산성이 고구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²²⁾. 그리고 북산봉수는 서산 북쪽의 북주산 봉수로, 해미의 안국산과 태안의 백화산을 연결하던 봉수임을 알 수 있고, 都飛山 烽燧는 高丘縣의 城山烽燧와 泰安郡의 白華山 烽燧를 연결해 주는 봉수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어 기록에 ‘今廢’로 전하는 산성도 2개가 확인된다. 첫째의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전하는 태성산성으로, 기록이 간단하지만 대규모의 석축산성으로 전하는데 기록을 음미하면 이 산성은 조선 초기에 이미 廢城된 것인데²³⁾ 서산지역의 산성중에 규모나 위치로 미루어 燕岩山城이 태성산성으로 비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 산성은 입지나 축조형태로 미루어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만 축성시기가 소급될 수 있는 산성이다. 다른 하나의 산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城山城이다.²⁴⁾ 석축산성이나 규모는 작은 것으로, 이 산성은 『大東輿地圖』에 대략 현재의 여미리山城 위치에 古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이 산성은 조선초기에는 폐성된 것이나 성내에서 백제시대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초축시기를 비교적 이른 시기로 상향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서산지역의 산성들은 대체로 시기판단이 어려운 것이 많다. 新松里山城과 북주산성 등은 일단 유물의 현황으로 미루어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외는 시대판단이 어렵다. 이들 성곽은 석성과 토성이 함께 있다. 주지되듯이 우리 나라에서 초기 성곽의 축조는 토성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백제의 경우 석성의 축조는 南遷 후의 사실로 확인되고, 南遷 이전은 주로 토성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지방사회에서 축조된 산성들도 대체로 토성이 기본이었다. 따라서 서산지역의 산성중에 토성으로 남아 있는 것은 상당수가 백제시대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혹은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에 지방사회에서의 필요에 따라 축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후대에도 지역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토성이 축조되기는 한다. 따라서 이들 성곽에 대한 정확한 축조시기의 판단은 유물 수습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서산지역의 고대사에 관련한 문헌기록은 매우 영성하지만,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나름의 흔적은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존재나 원삼국기 혹은 백제시대의 유적은 이

19) 『新增東國輿地勝覽』 洪州牧 烽燧條에 “高丘城山烽燧 南應結城縣高山 西應瑞山郡都飛山”

20) 『新增東國輿地勝覽』 瑞山郡 烽燧條에 “北山烽燧 東應海美縣安國山 西應泰安郡白華山”

21) 『新增東國輿地勝覽』 瑞山郡 烽燧條에 “都飛山烽燧 東應洪州高丘縣城山 北應泰安郡白華山”

22)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洪州牧 古跡條에 “高丘縣 在州西三十里 本百濟牛見縣 新羅改目牛爲伊山郡領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來屬”

23) 『新增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山川條 및 古跡條에 “犬城山 在縣東九里” 기록과 “犬城山城 石築 周九千九百六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24)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海美縣 古跡條에 “城山城 石築周一千四百三尺 今廢”이 그것이다.

지역이 일찍부터 인문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산성자료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서산지역에 백제산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富城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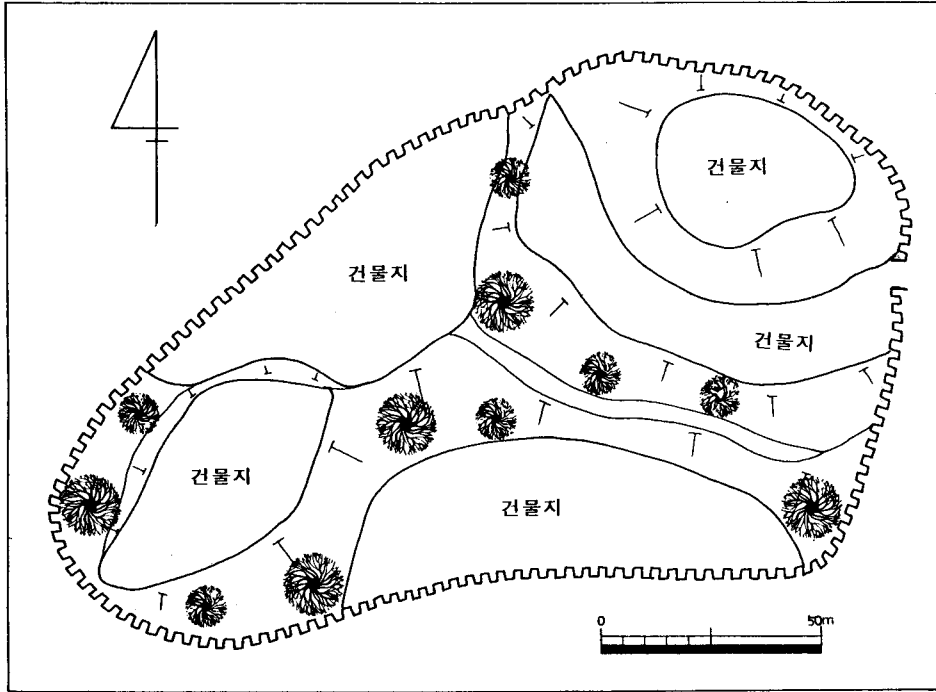
1. 城郭現況

城은 부성산의 정상부에서 中腹에 걸쳐 타원형으로 축성되었다. 즉, 부성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로 길쭉하고, 남북이 좁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벽 역시 이러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동쪽 부분은 산의 정상부를 지나는 반면에 서쪽은 中腹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능선을 가로 지르면서 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東高西低形의 삼태기 형태로 성이 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축성된 성의 둘레는 490m로 서산지역의 산성 중에는 작지 않은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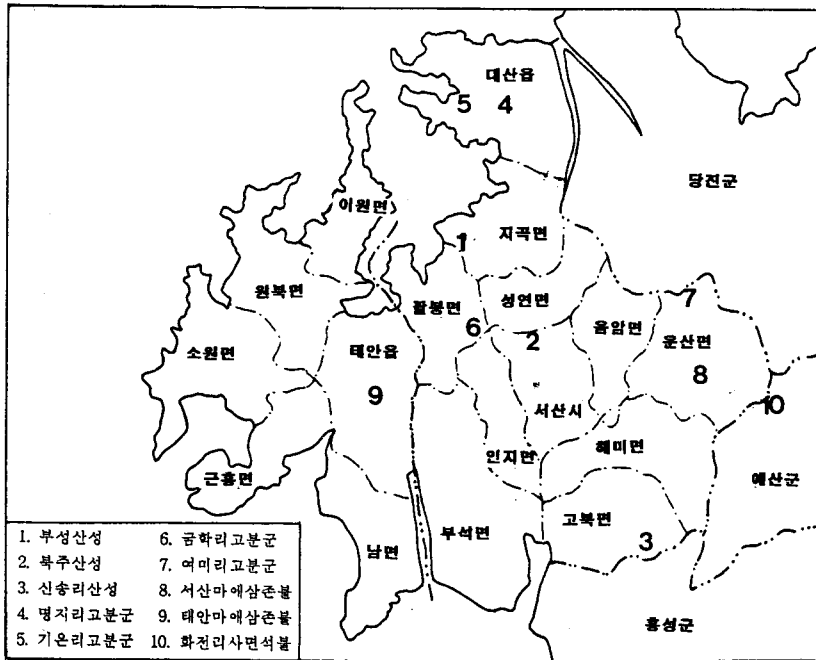
성벽은 이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벽의 面石 안쪽에 뒤채움 하였던 석재들은 그런 대로 원형을 남기고 있어 이를 토대로 성벽의 둘레와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벽과 북벽에서 특히 뚜렷하게 확인된다.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성내 廻廊道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능선 부분을 가로 지르면서 축성한 동벽과 서벽은 內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벽이 이렇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방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富城山城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백제 산성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城門과 건물지가 있다. 부성산성에 성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글지명총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부성산성의 주변에는 동문마을, 서문마을, 북문마을이 있어서 부성산성에 동문, 서문, 북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부성산성에서 이들 성문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부에서 中腹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벽의 경우에는 중간이 성벽이 끊긴 부분이 있어, 이곳이 혹시 東門址가 아닌가 추측된다. 서벽과 북벽의 경우에는 성문의 흔적이 전혀 찾아지지 않지만 서문마을과 북문마을의 존재로 보아 서문과 북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매몰되어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쪽 성벽에는 성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로 성문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문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만, 이 남벽이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 성내의 모든 물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벽에는 성내의 모든 물을 모아서 밖으로 배수하는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부성산성과 주변 유적 현황



<그림 2> 부성산성의 평면 현황과 성내시설 추정도

성내부는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평탄면이 여기 저기에 조성되어 있어 성내의 면적은 대단히 넓은 편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보면 성내 전체에 건물지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중에서도 형태가 분명하게 남아 있어 건물지로 확정지을 수 있는 곳은 대체로 4 지점 정도가 있다. 하나는 부성산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직경 약 25m 정도 크기로 원형의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다듬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건물이 있었다면 이곳은 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당되는 만큼 주변지역을 감시하거나 성내에서 일정한 의식을 행하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 정상부의 건물지에서 경사면을 따라 약 10m 정도 내려오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에 반원형의 또 다른 평탄면이 돌아가고 있다. 이 평탄면은 너비 약 10~15m 크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평탄면 지역에서도 많은 기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건물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것은 남벽의 안쪽과 북쪽의 안쪽면이다. 남벽의 안쪽면에는 현재도 부성사라는 2棟의 작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성벽의 안쪽으로 넓은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건물지로 추정된다. 북벽의 안쪽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와편과 토기편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건물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요컨대 부성산성은 석축산성으로 편축식으로 조성된 것이다. 성문은 1개만 추정되나 지명으로 미루어 남문 이외에 3개의 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성내는 전체가 건물지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매우 특이한 형상임을 알 수 있다.

2. 遺物의 檢討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기와편과 토기편이 대부분이다. 기와편은 평기와가 중심을 이루고, 토기편은 각종 용기들이다. 이들 유물의 수습은 성내의 전역에서 이루어진다. 건물지로 추정된 부분에는 기와편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고, 이외에 토기편이 포함된 형상이다. 여기에 붕괴된 성체내에도 적지 않은 유물이 포함되었는데, 포함된 유물의 종류는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유물은 기와류와 토기류 그리고 기타로 구분된다. 유물의 수습이 지표면에서 진행된 관계로 층위적 구분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유물의 특성에 따라서 시기구분은 가능하다. 즉 백제시대의 것과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이후 시기의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통일신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수적으로 매우 열세하다.

1) 百濟時代 遺物

(1) 기와류

수습되는 기와중에 백제기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양적으로 보면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을 백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태도와 문양, 그리고 제작상에 나타나는 모골의 형태나 측면 와도의 사용 방식 등에 의거하였다. 수습되는 기와의 종류에서 막새기와는 수습되지 않았지만 암키와와 수키와가 망라되어 수습된다. 문양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有紋瓦

그림 ①의 기와는 비교적 가는 선조문이 길이로 시문된 것으로 흑회색의 색조를 지녔다. 태도에 모래가 많이 포함되었지만 표면은 정제된 상태이다. 암키와편인데 종으로 시문된 문양위에 횡으로 문질러 지운 흔적이 있다. 정면은 포목의 흔적과 더불어 자릿문이 있는 것으로 와도로 안쪽을 자른 흔적만 남았다.

그림 ②의 기와는 수키와편인데 배면에 불규칙하나 깊은 선조문 형상의 선문이 시문된 것이다. 흑청색조에 태도는 비교적 고운데 배면에 가는 포목문이 있고, 와도를 사용하여 한번에 자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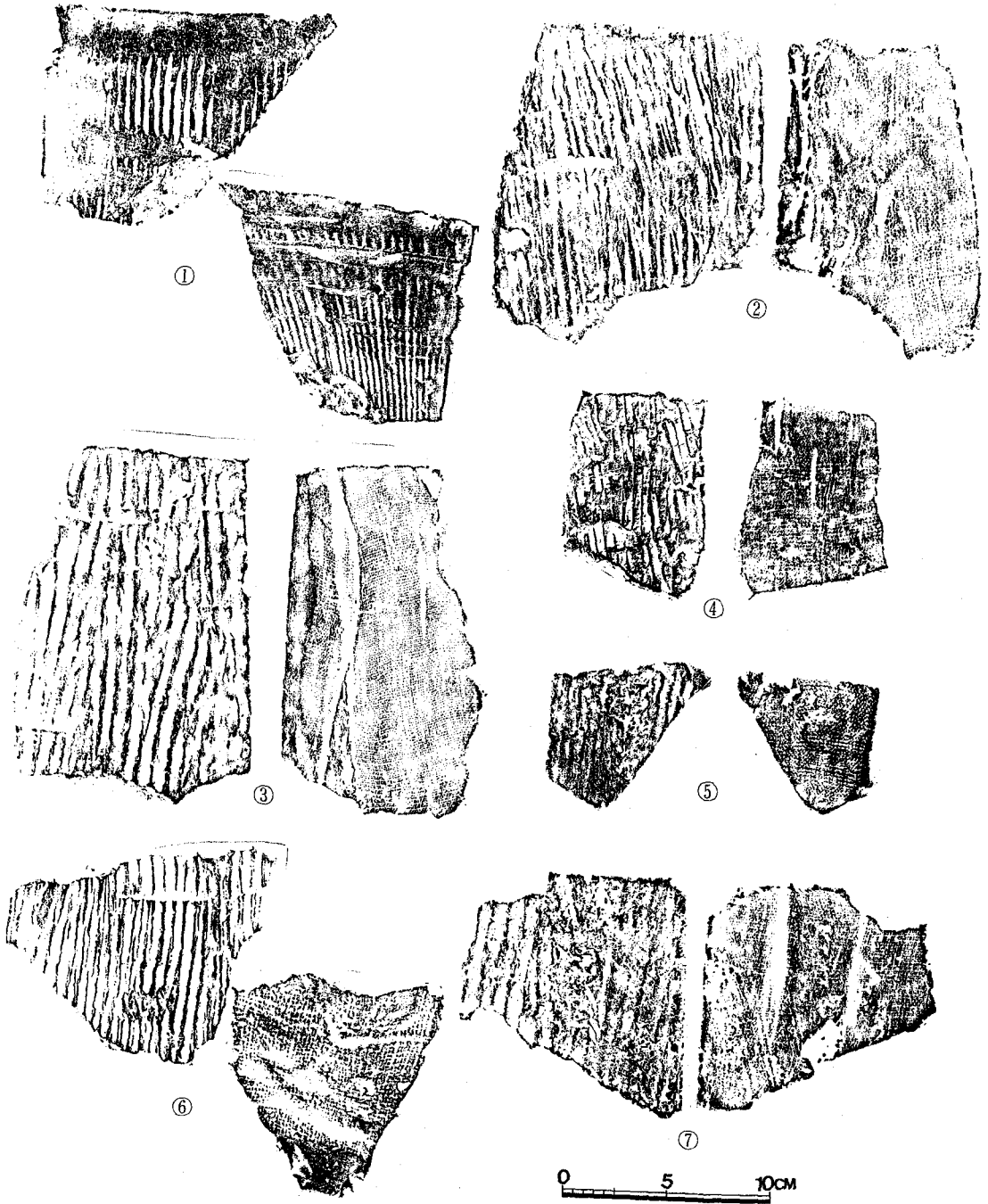
그림 ③의 기와는 굵은 태선문이 불규칙하게 배면에 시문된 수키와편이다. 회색조에 태도는 비교적 고운 편인데, 전면에 가는 포목문이 선명하게 있으면서 모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았다. 와도로 자른 측면은 재정면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림 ④의 기와는 비교적 얇은 것으로 평기와로 판단되나 자세하지 않다. 태도가 매우 곱고 소성도가 높은 것으로 타날에 의한 짧은 선조문이 선명하게 시문되었다. 배면의 포목문에 불규칙한 모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것이다.

그림 ⑤의 기와는 회색의 평기와편인데, 배면의 문양은 희미하나 선조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얇은 것으로, 전면은 비교적 골이 굵은 포목을 사용한 것이다.

그림 ⑥의 기와는 흑청색에 태도가 비교적 곱고, 소성도가 높은 것으로 배면의 문양이 굵은 자릿문처럼 조밀하게 불규칙한 선조문이 시문된 것이다. 전면에 모골 자국이 깊게 남았고, 곱고 거친 포목을 사용하였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후에 전면부를 깎아서 얇게 하였다.

그림 ⑦의 기와는 적갈색의 색조를 지닌 평기와편으로 소성도가 낮지만 태도는 매우 곱다. 배면 문양은 굵은 태선문이나 희미하게 남았다. 전면은 3cm간격의 모골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가는 포목문이 남았다. 측면은 와도를 내외로 두번 그어서 완전하게 절단한 형상을 남기고 있다.



<그림 3> 백제시대 유문와

無紋瓦

그림 ①의 기와는 갈색조가 짙게 나타나는 수키와편으로 배면은 와도로 이차 정면한 흔적만 있는 것이다. 태토가 곱고 소성도는 비교적 낮은 것이다. 전면은 포목문이 선명하게 남았으면서 모골자국은 희미하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 다음에 모서리를 다듬어 매끈하게 마무리하였다.

그림 ②의 기와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수키와편으로 판단되는데 흑회색에 태토가 고운 것이다. 전면을 와도로 다듬어 매끈하게 만들었고, 배면은 굵은 싸릿문이 있으면서 이를 이은 자국외에 모골의 흔적도 확인된다. 측면은 내외면을 와도로 자른 다음에 다시 정면한 흔적이 있다.

그림 ③의 기와는 흑색의 평기와편으로 태토가 매우 곱고 소성도는 낮다. 전면은 매끈하게 다듬은 흔적만 있고, 전면은 포목자국 위를 다시 정면한 것이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 다음 모서리를 깎아서 가늘게 하였다.

그림 ④의 기와는 평기와편인데 회색에 태토가 매우 고운 것이다. 배면은 물손질로 매끈하게 다듬었을 뿐이고, 배면은 포목자국이 있다. 측면은 와도로 내외면을 잘라 절단한 다음에 다시 모서리를 다듬은 것이다.

그림 ⑤의 기와는 청회색의 색조를 지닌 것으로 얇은 것이다. 태토도 고우며, 전면에 가는 포목문 자국이 있는데, 측면은 와도로 내외를 잘라 절단한 다음에 재정면한 것이다.

그림 ⑥의 기와는 작은 무문기와편인데 배면은 와도로 다듬은 흔적이 있고, 전면은 불규칙한 포목자국이 있다. 측면은 와도로 내외를 자른 다음에 재정면하였다.

그림 ⑦의 기와는 적갈색의 무문기와인데 배면도 다듬은 흔적이 있다. 전면은 싸릿문이 엮인 형상으로 있으면서 측면을 와도로 내외면을 자른 다음에 모서리를 재정면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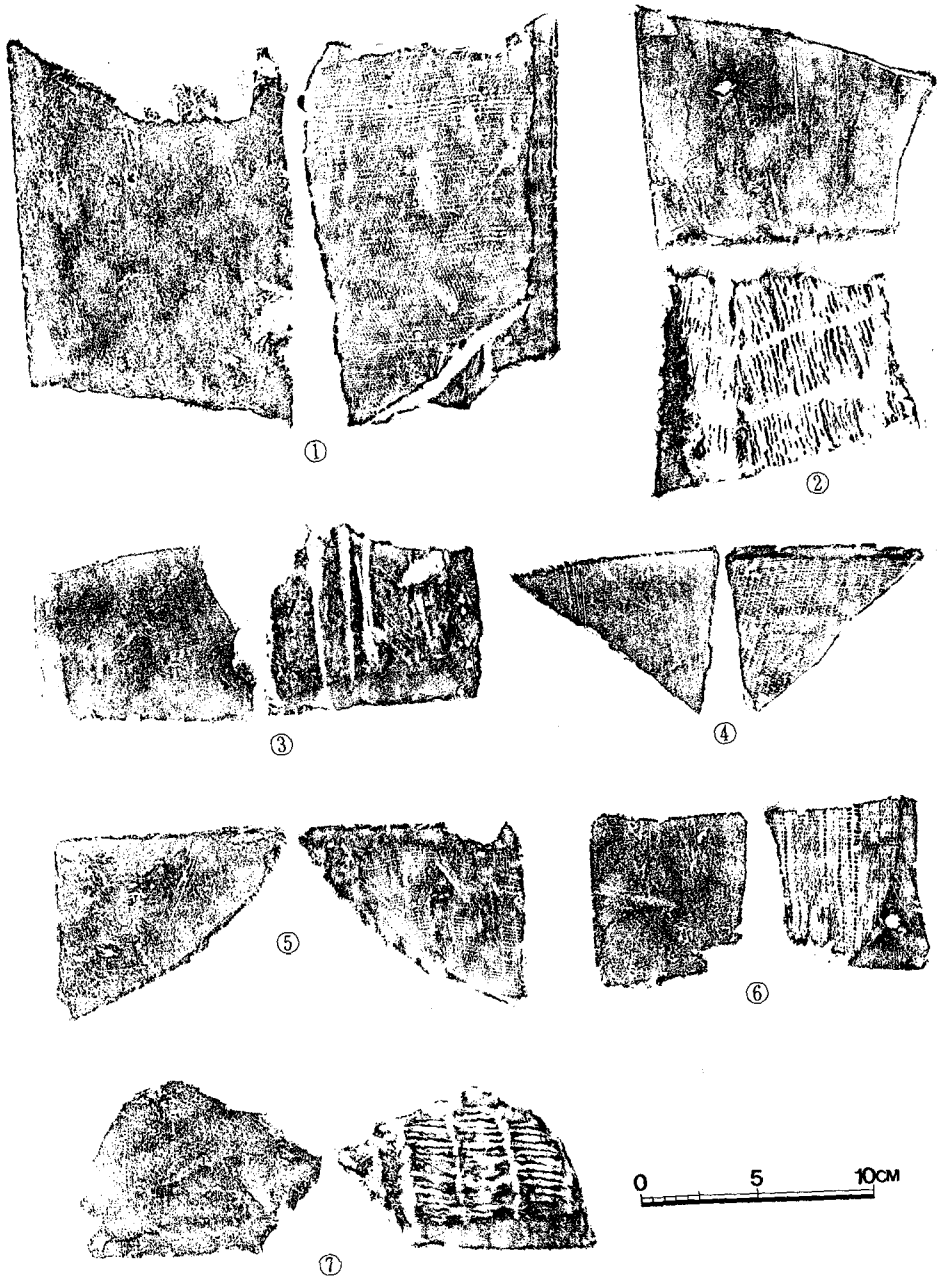
(2) 토기류

그림 ①의 토기는 개배의 뚜겅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흑청색에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드립새가 비교적 길다. 배신은 낮는데 외연에서 단을 두듯이 접은 다음에 가장자리에서 약간 들어서 밖으로 약간 퍼진 형상의 긴 드립새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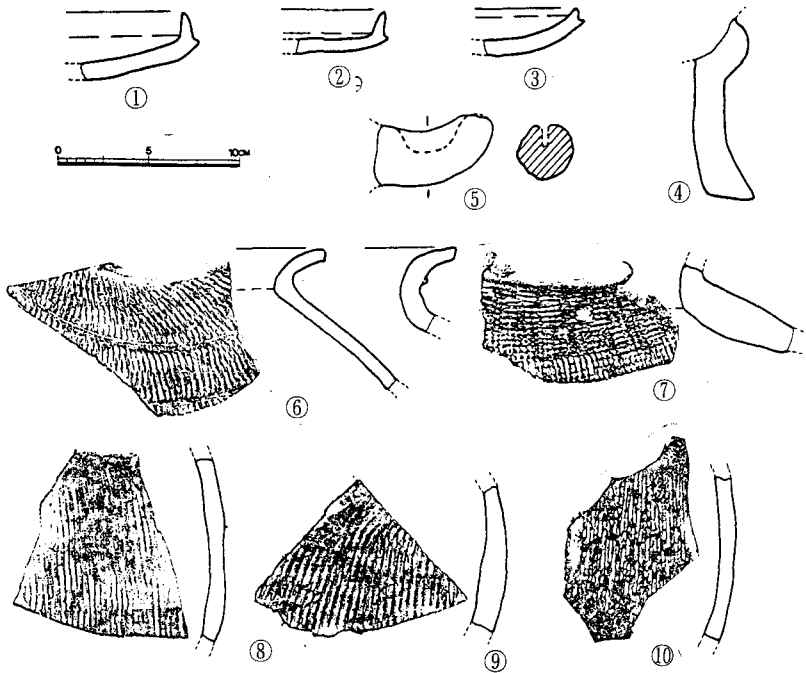
그림 ②의 토기편도 개배편인데 뚜겅으로 판단된다. 회청색조에 태토가 매우 곱고 소성도도 높은 편이다. 배신의 깊이가 거의 없으며 드립새도 배신의 가장자리에서 약간 들어서 밖으로 퍼진 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림 ③의 토기편도 개배편인데 드립새가 매우 짧은 것이다. 배신에 약간의 곡률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깊이가 어느정도 추정된다. 드립새는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이다.

그림 ④의 토기편은 용기 다리편인데 마치 향로의 다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태토나



<그림 4> 백제시대 무문와



<그림 5> 백제시대 토기류

소성도 등으로 미루어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회청색조에 소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태토가 매우 곱다. 길이 10cm정도의 것으로 상단은 용기의 저부 가장자리에 부착시키면서 뭉툭하게 하였지만 다리 자체는 C자형의 곡률이 있고, 단면 반통형에 표면을 다듬은 것이다.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수평을 이루면서 넓적하게 만들었다.

그림 ⑤의 토기편은 파수인데 길이 6.3cm정도의 크기이다. 태토가 매우 거친 갈색의 연질토기인데 파수의 상단에 직선의 홈이 깊게 패여 있다.

그림 ⑥의 토기편은 단경호의 구연 및 이에 부착된 동체편으로 소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표면에 자연유가 덮여 있는 것이다. 회청색의 색조에 표면에 승석문이 시문되었고, 동체의 상단에 짧은 구경을 내고 외반구연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림 ⑦의 토기편도 단경호 편인데 기벽이 매우 두껍다. 구연의 일부만 남았는데 소성도가 높아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고, 外反口緣의 구순은 단면 수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림 ⑧의 토기편은 동체의 상단 즉 경부와 접합부인데, 흑회색에 동체에 가는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이다. 동체와 구연의 접합부가 매우 굵게 남은 것으로 대형 용기의 조각으로 판단된다.

그림 ⑨의 토기편은 토기의 胴體片으로 대표적인 것 3점을 제시한 것이다. 모두 소성도가 높아 자연유가 전면이 덮여 있으며, 繩席紋이 조밀하게 시문된 것으로 백제말기의 토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들이다.

2) 統一新羅時代 遺物

산성내에서 수습된 유물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기와편과 토기편이 있다. 기와는 문양에서 백제시대의 것과는 다른 문양 및 제작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토기는 형태나 문양 및 기형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다.

(1) 기와류

그림 ①의 기와는 연한 갈색에 소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배면에 굵고 큰 격자문이 시문된 것이다. 암키와편인데 포목문이 있고, 한 조의 굵은 모골자국도 있다.

그림 ②의 기와는 흑청색조에 태토가 사질성인데, 큰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 수키와편이다. 배면에 가는 포목문이 있고, 측면은 외면에서 와도로 한번 그어서 절단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③의 기와는 굵고 투박한 암키와 편으로 흑회색조를 지닌 것이다. 불규칙한 격자문이 크게 양각으로 시문되었고, 전면에는 거친 포목문 자국이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와도로 한번 그어서 절단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④의 기와는 소성도가 매우 높은 것이나 태토는 매우 거친 흑회색의 암키와편이다. 배면에 불규칙한 사격자문이 시문되었고, 전면은 굵은 포목문이 있다.

그림 ⑤의 기와는 회갈색조를 띠는 것으로 태토가 매우 거칠고 굵은 모래가 포함된 것이다. 양각의 불규칙한 격자문이 시문되었고, 안쪽은 모골과 싸릿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았을 뿐이다. 내면에서 와도로 한번 그어 절단한 것이다.

그림 ⑥의 기와는 회청색조를 지닌 것으로 암키와편인데 배면의 문양은 선조문에 불규칙하게 횡으로 선을 넣은 양각문을 지닌 것이다. 배면은 가는 포목문 자국만 있다.

그림 ⑦의 기와는 청색조이나 표면은 변질된 것으로 태토가 거칠고 소성도가 높은 것이다. 배면에 어골문이 시문되었고, 전면은 가는 포목문이 남아 있다.

그림 ⑧의 기와는 적갈색조에 소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어골문이 조밀하게 시문된 것이다. 전면에 굵은 자릿문 형상이 남았으나 희미하다.

그림 ⑨의 기와는 흑청색에 태토가 고운 편인데, 배면에 어골문과 선조문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전면은 싸릿문을 조밀하게 엮은 흔적이 시문된 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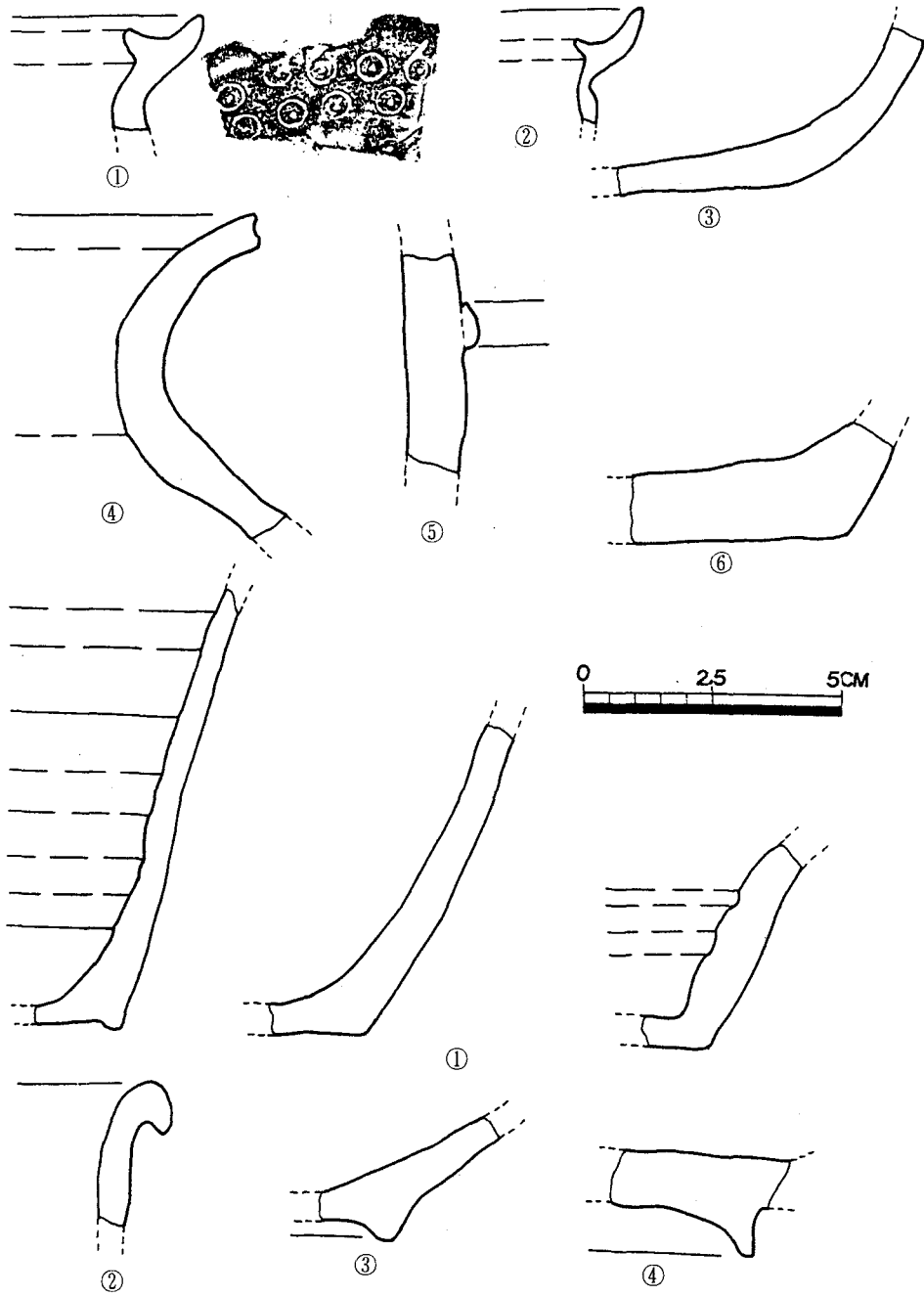
(2) 토기류

그림 ①의 토기편은 신라의 전형적 원점문이 시문된 것으로 소성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기형은 드림새와 그릇받침 턱이 있으나 복원이 어렵다.

그림 ②의 토기도 소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회청색조를 띠는데, 그릇받침 턱이 있고, 여기에 짧고 낮은 드림새가 있는 것이다. 앞의 원점문이 있는 토기편과 비슷하나 기형복원은 어렵다.



<그림 6> 통일신라시대 기와



<그림 7> 통일신라시대 토기 및 기타 유물

그림 ③의 토기의 동체편인데 소성도가 매우 높은 흑청색이다. 胴體片으로 추정되는데 한 쪽이 수평으로 눌러 있어 편병으로 추정되나 자세하지 않다.

그림 ④의 토기는 口緣片으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瓶形土器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도가 매우 높아 표면에 자연유가 넓고 두껍게 덮여 있는데 좁은 경부에 外反口緣을 지녔고, 구순은 넓으면서 얇게 흠이 있다.

그림 ⑤의 토기편은 胴體片으로 추정된다. 소성도가 높은 편인데 기벽의 두께로 보아 대형토기편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突帶가 굵게 돌아 있는 것이다.

그림 ⑥의 용기는 납석제로 바닥만 남은 것이다. 외면이 매끈하게 정제되었지만, 내면은 들러 정면한 자국이 있는 비교적 투박한 것이다.

3) 其他 遺物

산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중에는 간헐적이지만 백제 혹은 통일신라시기의 유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종류는 土器類와 瓷器類가 있는데 많지는 않다.

그림 ①의 3점의 토기편은 底部片으로 여기에 동체의 일부가 부착된 것이다. 평저에 기벽이 비교적 곧게 올린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瓶形土器와 흡사하다. 외면에 문양은 없고, 내면에 물레 성형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림 ②의 토기편은 회색에 소성도가 낮지만 동체에서 직접 구연을 짧게 만들면서 구순을 밖으로 접어 동그랗게 말아 처리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토기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림 ③의 자기는 청자편이다. 대접 혹은 깊이가 있는 碗片으로 추정되는데 굽이 있고, 표면의 釉藥이 두텁게 있는 것으로 粗質靑瓷에 가깝다. 이외에 그림 ④의 자기편은 백자로 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부성산성내의 수습유물은 시기별로는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통일신라 이후시기의 것은 수습 빈도가 매우 적다. 종류는 백제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유물 모두 기와류와 토기류로 구분된다. 기와류는 막새기와는 발견되지 않고, 평기와가 대부분인데 제작기법이나 태토, 그리고 문양 등에서 시대적 특성이 선명하다. 토기류의 경우도 기종에 따라서는 시대구분이 분명하나 기종이 다양한 편은 아니다.

IV. 富城山城의 性格

산성의 검토는 우선적으로 축성 및 기능시기의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 자체의 형태적 특성이라던가 입지를 토대로 그 역사적 의미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부성산성은 부성산의 정상에서 중턱에 걸쳐 둘레 490m의 규모로 타원형으로 축성된 것이다. 東高西低의 삼태기형인데 성벽이 붕괴되었지만 面石 안쪽을 뒤 채운 石城인데 片築式으로 조성하였다.

따라서 성곽의 형상은 우리 나라 고대산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많이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곽의 형상만으로 축조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곽은 특성상 잦은 증축이 이루어지기에 시기 차에 따른 구조특성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발굴과 같은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성산성의 시대 검토는 성내의 수습유물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성격에 대해서도 유물을 통해서 얻어진 시기판단에 입각하면서 성의 입지나 형상을 근거하여 考究될 수 있을 것이다.

지표수습이지만 성내에서 수습된 유물은 시기상 크게 백제의 것과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고려시대의 것도 있으나 빈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성의 축조 혹은 기능 시기와 연계하여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습된 유물중에서 백제계통의 것은 기와류와 토기류지만, 이들은 모두 백제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다. 기와를 보면 백제기와의 경우 제작기법과 태토, 그리고 문양에서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부성산성 출토품은 대동소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제작기법에서 포목문과 포목문하의 模骨의 형상을 남긴 것이 많고, 측면 절단에서 內外面을 자른 다음 再整面하였다. 더불어 태토가 투박하지 않은 매우 고운 것을 사용하는데, 문양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線條紋이 보편적으로 施紋되면서 문양자체를 再研磨로 지운 것이 많다. 특히 무문의 평기와는 양측면을 瓦刀로 再整面한 흔적이 많은데 이런 제작기법은 백제기와 고유의 형상이기도 하다.

기와류 이외에 백제시기로 판단되는 유물은 토기류가 전부이다. 그런데 토기류는 수량은 많지만 대체로 壺의 동체편이 많아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백제토기의 고유 특성을 지닌 기종이 있기에 시대구분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유물 자체에서 선후로 크게 시기를 구분할 요소도 그리 많지 않다. 가는 자릿문이나 시문되거나 혹은 無紋인 채 소성도가 매우 높은 경질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 蓋杯의 경우 杯身이 얇고, 드립새가 後代的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것만 있다는 점은 비록 백제토기의 계통이나 編年的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수습된 토기류가 백제의 전기, 즉 웅진도읍 이전시기로 구분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질소성의 把手는 사례에 따라서 원삼국기 혹은 백제의 초중기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유형의 토기가 후대까지 제작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백제 후기라는 편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통일 신라기 유물은 수량에서 백제시대의 유물의 출토 빈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유물의 구성에서 기와류는 비교적 많은데, 분류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土器類는 백제토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와류나 토기의 신라적 속성은 제작기법이나 문양, 그리고 형상을 토대로 구분한 것이나 시기적 세분은 어렵다. 다만 어골문과 같이 신라말기 혹은 고려시대 초기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통일신라시기 전체기간에 걸치는 유물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성곽의 增·改築과 관련하여 성내의 유물 收拾狀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부성산성은 石城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런데 성곽 축조에서 외면을 面石한 다음에 뒤 채움으로 석재와 흙을 채우는데 片築城의 일반적 형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의 일부는 성 자체가 절단된 형태로 남은 곳이 있는데 뒤 채움한 흙 속에 다량의 기와편 및 토기편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대체로 백제시대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습유물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의 초축시기는 적어도 백제기와의 가리키는 시기에 축조되었거나 혹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토기의 구성내용을 보아 初築 시기는 적어도 백제의 후기 즉 웅진도읍 이후의 시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그럼에도 기와류의 출토가 많다는 것은 성내에 조영되었던 시설들이 백제가 멸망한 다음인 통일신라시대에도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무튼 출토유물로 보아 부성산성의 初築時期는 백제의 웅진천도, 즉 백제가 금강유역에 자리한 이후로 추정할 수 있겠으며, 석축의 體城이 통일신라시대에 증축 혹은 개축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며, 성곽자체도 백제이래 통일신라시대까지 여전히 본래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성내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기와들은 이것이 특수한 건물에만 사용된다는 일반적 관점을 고려하면 우선 성 자체가 비중 있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부성산성이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것은 서산지역이 백제시대에 나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중요성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영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앞서 살핀 것처럼 서산지역에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산성이 적지 않다. 신송리 산성, 반양리 산성, 그리고 북주산성은 유물의 수습양상으로 미루어 백제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외에 시대판단이 어려운 토성 등도 백제산성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이 지역에 백제산성의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백제시대의 산성 축조는 군사적 방어시설 혹은 현치소와 같은 행정적 요소를 겸비한 방어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는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 새로운 방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백제산성들도 우선은 이러한 환경에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부성산성은 백제시대의 일반적 산성과 비교하여 입지와 형상에서 특이성이 발견된다. 우선 입지에서 보면, 백제 산성으로는 드물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바다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리아스식으로 해안의 굴곡이 매우 심하다. 특히 서산의 서쪽지역은 태안군의 이원면인 태안반도 북단지역이 북으로 뻗어 있고, 여기에 서산시의 대산반도가 서쪽으로 돌출되면서 이들 두 개의 돌출 반도가 감싼 가로림만이 안으로 깊게 만곡된 형태로 있다. 그리고 이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주변에 백제시대의 산

성은 부성산성이 유일한 예이다. 산성의 입지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성의 배치는 군사적 목적만을 고려하면, 도성방비체계처럼 중심의 거성이 있고, 거성을 중심으로 외곽에 성을 돌려 배치하는 형식,²⁵⁾ 순수한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전선을 중심으로 전연배치를 고려한 선방어의 형태,²⁶⁾ 혹은 최전방의 방어성을 기점으로 중심선을 따라 연결성을 두는 형태²⁷⁾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부성산성도 군사적 기능만을 고려할 경우 이중의 하나일 것인데, 중심거성이라던가, 전연배치의 성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마땅히 연결할 만한 산성 유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전방의 방어성 혹은 연결성으로서의 기능은 보다 전방에 방어성이 없다는 점에서 연결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전방의 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가로림만 안쪽인 부성산성의 전면이 외적 침입로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백제시대의 산성은 비단 군사적 防禦施設 외에 縣治所와 같은 행정적 기능을 위하여 조영된 것도 적지 않다는 점으로²⁸⁾ 미루어 부성산성도 그와 같은 기능이 아니었나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군현의 치소로서 기능하였음을 방증할 수 있는 관련 유적, 즉 생활유적 혹은 고분과 같은 유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은 마땅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더욱이 성내 수습유물이 특정시기부터 비롯된다는 점은 이 산성이 특정시기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축조된 것이 아닌가를 추정케 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부성산성은 성내에 시설물이 매우 조밀하게 들어차 있다. 이는 백제 산성으로는 비교적 특이한 구조로 볼 수 있다. 부성산성은 둘레가 490m로 비교적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성내의 모든 면적이 건물지로 채워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다른 백제 산성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인데, 대체로 백제산성의 일반적 형상은 성내에 소수의 건물지 혹은 용수 저장시설 등만이 마련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건물들은 기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고대시기 기와의 사용은 국가적 관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와 사용자체도 주목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부성산성의 이러한 제 특성을 고려하면, 순수한 군사적 목적이나 지방의 거점성으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라는 단순 기능 외에 보다 특수한 목적에서 축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이 산성이 해안에 바다에 직면하면서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백제의 중국으로 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사실 백제의 웅진천도는 고구려와의 대립속에 불가항력적 조치였지만, 천도후 초기의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웅진도읍 중기이후에는 대중국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여기에 한성도읍시기와는 달리 금강유역에 도읍하던 시기의 대중국 통교는 자연히 충남의 서해안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5) 俞元載, 1986. 「熊津都城의 防備體制에 對하여」 『公州敎大論叢』 22 公州敎育大學

26) 徐程錫, 1992. 앞의 글

27) 洪思俊, 1971. 「百濟城址研究」 『百濟研究』 忠南大百濟研究所

28) 井上秀雄, 1985. 「古代韓日文化交流」 『朝鮮學報』 94號

그런데 금강유역에 자리한 도읍지인 지금의 공주나 부여에서 대중국 교통은 금강하류도 설정될 수도 있겠지만, 거리상의 문제와, 태안반도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왕에 자주 논급되어 왔듯이 서산, 태안 혹은 당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아직 태안이나 당진에서 부성산성과 같은 독특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 부성산성이 입지상으로 가로림만이란 천연적 만곡지역 안쪽에 자리하면서 내륙쪽으로 교통로의 연계가 어렵지 않은 점은 이 산성이 해상교통과 관련한 기능을 추정하기에 결코 어색하지 않다. 더불어 성에서 사방의 조망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성 정상부의 건물지는 해상교통과 관련된 의식시설로의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서산의 마애삼존불과 태안의 마애 삼존불은 부성산성과 더불어 삼각배치를 이루면서 두 지역의 마애불이 동서간을 축으로 자리하면서 부성산성이 전방의 삼각 꼭지점에 위치하는 것도 이와 유관하지 않을까.

요컨대 부성산성은 수습유물로 보면 백제의 웅진도읍기 이후에 축조된 유적으로 성의 기능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산성은 입지나 성내의 시설물로 미루어 단순한 군사적 목적의 방어시설로 보기에는 특이성이 많다. 오히려 이 산성은 축성시기 및 성내의 건물지, 그리고 입지조건 등의 현황으로 미루어 백제의 웅진천도 후의 대중국 교통로상에 위치한 육지쪽의 전진기지가 아니었나 판단된다.

V. 맺음 말

문헌기록을 통해서 서산지역의 백제시대 정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행정구역명 이외에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상을 전하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는 명지 고분군을 비롯한 매장유적 외에 산성이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의 서산지역 정황에 대한 대략의 이해는 가능하다. 특히 서산지역의 백제시대 산성중에 부성산성은 출토유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입지나 성내의 시설에서 특이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의 출토 유물과 성의 형상 그리고 입지조건을 토대로 성 자체의 기능을 추고하여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정황 추정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성산성은 수습되는 기와로 미루어 백제시대에 이미 축성되어 통일신라시기까지 성곽이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내의 수습 유물중에 백제시대의 토기편이 대체로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의 것에만 집중되고 있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축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더불어 성내에는 많은 건물지가 있으면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입지상으로 바다에 면하여 교통로상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부성산성이 군사적 목적의 시설 혹은 행정치소와 단순기능을 넘어서 보다 특수한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하는데, 백제의 대중국 교통로의 전진기지가 아니었나 추정하여 보았다.